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톨스토이)의 반전사상과 공동체방안

김 영 수*

Ⅰ 국문초록 Ⅰ

20세기 초반의 과거는 톨스토이(톨스토이)가 비판했던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런데 21세기 초반의 현재도 핵전쟁의 위협과 소규모의 전쟁과 인종간의 폭력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권력에 대한 사랑과 허영에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권력이란 사람들에게 기존의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이었다. 톨스토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회체제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톨스토이는 국가를 혐오했지만 외세의 침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그에겐 세상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악의 존재였다. 톨스토이는 민족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민족 자체는 애국심과 침략성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톨스토이는 소규모의 도덕적인 '농촌공동체'를 국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톨스토이의 비판과 대안을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작은 정부,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지향을 의미한다.

결국 톨스토이는 국가의 애국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했는데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신과 유사한 정신적 존재이고 인간은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데 인간은 사랑으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였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삶의 사명과 의미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행동의 '내적지침'이 필요했다. 톨스토이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었다.

[주제어] 톨스토이(톨스토이), 러일전쟁, 농촌공동체, 애국심, 국가와 권력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Ⅲ. 국가 및 연합의 해체와 농촌공동체의 조직 |
| Ⅱ.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 | Ⅳ. 맺음말 |

*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편찬위원장 / pasac1@nahf.or.kr

I. 머리말

러일전쟁으로 인한 양국 병사의 피해는 막대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약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일본은 약 8만 6천명 전사했는데 양국 모두 각각 약 27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¹⁾

그런데 러일전쟁 당시 모두가 살인의 광기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Л.Н. Толстой, 1828~1910)는 러시아 예비병사들의 죽음을 예감하며 전쟁터로 끌려가는 상황을 고발했다. 대부분 예비병사들이 글을 알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러일전쟁이 “투기꾼의 도로를 건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차지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동시에 예비병사는 “전쟁터에 가기를 거부하면 야쿠트주로 보내질 것인데 아마도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며 채찍질을 당하며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²⁾

당시 죽음의 기로에선 병사조차도 전쟁의 광기에 찬 살인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톨스토이는 러일전쟁 이후 뤼순항의 한 수병이 보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저는 톨스토이 선생님의 작품을 읽는 것을 매우 사랑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에게 살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진실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교회 주교는 러시아 군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쟁을 좋아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 수병은 ‘세상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줄 책을 보내 줄 것을 톨스토이에게 간곡히 간청했다. 수병은 책이 없다면 편지라도 보내 줄 것을 톨스토이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이 사랑스럽고 진정으로 교화된 수병에게 답장을 보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편지로도 전보로도 소식을 알릴 수 없는 뤼순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³⁾

톨스토이의 시선과 달리 당시 러시아 신문은 러일전쟁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투상황과 전사자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했다. 그 중 극우신문으로 알려진 『노보예 브레먀(Новое время, 새 시대)』는 당시 러시아의 수도 삿페르부르크에서 1868년부터 1917년까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의 발행인은 수보린(А.С. Суворин)이었는데 그는 당대 정치가와 문학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는 1889년부터 『노보예 브레먀』에 ‘짧은 편지’라는 연재물을 통해 당시 정치현안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 신문의 구독자는 학생, 작가, 관료뿐만 아니라 황제까지 포함되었다. 당시 러시아정부 관료는 각종 현안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노보예 브레먀』를 참고자료로 사용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언론은 『노보예 브레먀』를 번역하여 러시아의 상황을 보도했다. 이러한 『노보예 브레먀』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 대한제국 언론은 다시 인용하여 러시아 상황을 한국에 보도할 수 있었다.

1)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Под редакцией И.И. Ростунова. 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7. С.365.

2)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43-144.

3)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47-148.

러일전쟁 직전 1904년 1월 25일(양력 2.7) 러시아 극우신문 『노보예 브레마』는 블라디보스톡 소재 일본인이 탈출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극비지령’에 따른 것이라 보도했다. 이날 낮에 노보예 브레마는 호위를 발행해서 1월 24일(2.6) 일본이 교섭 단절과 외교관 철수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⁴⁾ 1904년 2월 2일(2.15) 『노보예 브레마』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을 비판했다. “러일전쟁으로 국제법을 부정하며 야수가 되어가는 일본이 광기로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중립은 존재해야 한다. 영미의 국제법 전문가는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조차 있는가?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걱정하고 있다고 각종 문서를 통해서 주장했는데 왜 중립국을 자신들의 군사작전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가?”⁵⁾

1904년 2월 4일(2.17) 『노보예 브레마』는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제물포해전 관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제물포 전경, 순양함 바랴(Варяг)와 함장 루드네프(В.Ф. Руднев), 포함 까레예즈(Кореец)와 함장 벨라예프(Г.П. Беляев)의 사진 등이 그것이었다.⁶⁾ 심지어 1904년 2월 18일(3.2) 『노보예 브레마』는 “죽음을 불사하고 제물포해전을 수행했다”며 바랴를 기념하는 추모시를 실을 정도였다.⁷⁾ 그만큼 『노보예 브레마』는 전쟁기사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러일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노보예 브레마』의 보도를 자신의 에세이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반전사상에 입각해서 러일전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⁸⁾ 또한 톨스토이가 동양 특히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⁹⁾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는 톨스토이의 반전사상도 주목했다. 김려춘은 톨스토이와 노자의 무위론(無爲論)의 유사성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톨스토이 수용까지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러일전쟁 이후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을 수용한 일본 지식인의 반전 운동을 구

4) 『Новое Время』, 1904.1.25.

5) 『Новое Время』, 1904.2.2.

6) 『Новое Время』, 1904.2.4.

7) 『Новое Время』, 1904.2.18.

8) 러시아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Ломунов К.Н. Лев Толсто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Москва: Современник, 1975; Зорин А.Л. Жизнь Льва Толстого: Опыт прочтения.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20. 국내에 소개된 톨스토이의 생애와 사상 관련 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최대회, 「톨스토이와 사회민주주의적 인텔리겐치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4, 2003; 심성보, 「레프 톨스토이의 민화에 나타난 노자의 무위사상」,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7, 2004; 로맹 톨랑(지), 이정림(역), 『톨스토이의 생애』, 범우사, 2008; 심성보, 「레프 톨스토이와 아나키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2008; 슈테판 츠바이크, 『톨스토이를 쓰다』, 세창미디어, 2013; 이항재, 「노자의 무위와 그리스도의 사랑」,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8, 2015; 조혜경, 「노장과 톨스토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8, 2017; 레프 톨스토이(지), 최재목(역), 『톨스토이가 번역한 노자 도덕경』, 21세기문화원, 2021. 최근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가 창작한 소설은 다음과 같이 국내에 번역되었다. 레프 톨스토이, 『하지 무라트』, 문학동네, 2018(*1904년 완성); 레프 톨스토이, 『홀스토메르 무엇 때문에』, 지식음만드는지식, 2013(*1906년 완성). 그 밖에 1906년 2월 톨스토이는 동서고금의 인생철학을 집대성한 『독서의 고리(Круг чтения)』 1권을 완성했다(톨스토이(지), 박형규(역), 『인생독본』 1-2, 문학동네, 2020*1906년 2월 1권 완성, 1908년 2권 완성). 한국에서 톨스토이의 문학적 수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문석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世界文學比較研究』, 1996.

9) 러시아에서 톨스토이와 동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А.И. Шифман, Лев Толстой и Восток. Москва, Наука, 1971; А.Н. Мещеряков, Император Мэйдзи и его Япония. Москва, Наталис, 2009.

명했다.¹⁰⁾ 국내에서도 톨스토이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및 일본의 반전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¹⁾

박노자는 그동안 한국에서 톨스토이의 도덕성만 주목했다고 비판하면서 톨스토이의 반전사상과 반(反)국가사상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혁명적 정치사상가인 톨스토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데 “친일 근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박노자는 한국의 아나키스트들이 톨스토이의 국가해체라는 근본적인 사상을 수용했지만 한국 친일파들이 톨스토이의 도덕성만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박노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반(反)국가주의 사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톨스토이의 사상을 ‘비정치적인 인격수양’ 또는 ‘개량된 기독교 윤리’라는 측면에서만 추종했다.¹²⁾

이문영은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을 ‘평화’와 ‘동아시아’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는데 톨스토이의 ‘반국가’와 ‘탈애국’을 살펴보면서 톨스토이의 전체적인 사상을 상세히 규명했다. 이문영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노동 착취를 합법화 하는 경제 질서,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신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는 기성 종교 등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겼다. 이문영은 톨스토이의 러일전쟁론이 일본의 초기 사회주의와 기독교 평화주의의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주목했는데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이 인도, 중국, 일본, 한국에 미친 영향력도 함께 검토했다.¹³⁾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톨스토이의 반전사상을 주목했지만 톨스토이가 바라본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¹⁴⁾ 그 이유는 선행연구가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못했기 때문이었다. 러일전쟁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 전쟁이었는데 필자는 톨스토이가 파악한 러

10) Kim Reho. *Лев Толстой и литературы Востока* Сб. ст.,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 А.М. Горького, 2000; 김려춘(저), 이향재(역), 『톨스토이와 동양』, 인디북, 2004, 227~254쪽.

11) 矢ヶ崎秀則, 「러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반전사상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99; 박양신, 『메이지 사회주의자의 반전론』, 『아시아문화연구』 12, 2007; 고토쿠 슈스이(저), 임경화(역), 『나는 사회주의자다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기원』, 교양인, 2011; 임경화,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인문논총』, 72: 2, 2015(임경화,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1905년 러시아 혁명과 동아시아 3국의 반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강옥현, 「러일전쟁 시기 러일지식인의 반전(反戰)사상: 톨스토이(L.N. Tolstoy)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6. 강옥현에 따르면 톨스토이 반전사상의 특징은 기독교 아나키즘에 기초하여 전쟁을 ‘개인의 마음과 종교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적 윤리에 기초한 톨스토이의 ‘종교적 관념론’은 사회주의자로부터 ‘비현실적 이상주의’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강옥현, 「러일전쟁 시기 러일지식인의 반전(反戰)사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6, 23~44, 71~74쪽) 강옥현은 기독교 평화주의와 기독교 아나키즘의 시각에 기초하여 영어로 번역된 톨스토이의 에세이를 분석했는데 톨스토이의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국가 권력에 대한 성찰을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가 집필한 다수의 에세이와 작품에 집중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12) 박노자, 「너희가 ‘톨스토이’를 아느냐」, 『한겨레 21』, 2004.2.26.; 박노자, 「너희가 톨스토이를 아느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사, 2010, 89~96쪽.

13)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모시는사람들, 2016, 119쪽; 이문영,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 성자인가 전사인가」, 『오마이뉴스』, 2016.7.15.

14) 그동안 1900년대 톨스토이가 작성한 에세이와 편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톨스토이, 『사랑의 법칙과 폭력의 법칙』, 아웃사이더, 2004(Leo Tolstoy, *The law of love and the law of violence*, 1908);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국가는 폭력이다』, 달팽이, 2008; 톨스토이·아인슈타인·프로이트(저),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해례원, 2013; 톨스토이, 『비폭력에 대하여』, 바다출판사, 2021;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톨스토이 비폭력 평화 편지』, 열린시선, 2022.

일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기존 러일전쟁을 외교사와 전쟁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시선을 제공할 것이다.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다수의 에세이를 발표했고 이것을 외국에서 발간되는 신문과 잡지 등에 투고했다. 당시 톨스토이가 투고한 에세이들은 당시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될 만큼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세계적으로 형성시켰다. 따라서 필자는 러일전쟁 전후 톨스토이가 발표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중심으로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1904년 5월 8일 톨스토이는 「다시 생각하세요!(Одумайтесь!)」라는 제목으로 러일전쟁에 관한 에세이를 완성했는데 1904년 잡지사 『언론의 자유(Свободное слово)』는 영국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Крайстчерч)에서 출판되었다.¹⁵⁾ 체르뜨코프(Чертков В.Г. 1854~1936)는 톨스토이주의자 그룹의 리더 중 1명으로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저작의 출판이 불가능해지자 영국에서 톨스토이 저작의 출판을 주도했는데 그는 『언론의 자유(Свободное слово)』라는 출판사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발간된 『언론의 자유(Свободное слово)』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다. 톨스토이는 1904년 6월 27일자 『The London Times』에 「자신을 생각하세요!(Bethink Yourselves!)」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는데 이 에세이를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 바로 체르뜨코프였다.¹⁶⁾ 톨스토이의 「일러전쟁론(トルストイ翁の日露戦争論)」은 1904년 8월 7일자 일본 『평민신문(平民新聞)』 39호에 소개되었다. 톨스토이의 러일전쟁론이 평민신문에 소개되자, 일본 내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기독교 사회주의자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 그룹 사이에 유지되었던 균형이 무너졌다. 고토쿠 슈스이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0~1933)가 함께 번역한 「일러전쟁론」은 일본에서 출판되자마자 8,000부가 팔렸다.¹⁷⁾

둘째 톨스토이는 1905년 6월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라는 제목으로 러일전쟁에 대한 에세이를 완성했는데 1906년 『언론의 자유(Свободное слово)』라는 잡지 99호(№99) 실렸다. 톨스토이는 1904년 8월 29일과 1904년 8월 31일자 『The London Times』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The

15) 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616;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00-148. 톨스토이는 뤼순항 맞은편에서 러시아군인 6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고를 마무리했다고 기록했다(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36).

16) <https://tolstoy.ru>; https://ru.wikipedia.org/wiki/Чертков,_Владимир_Григорьевич. 체르뜨코프는 1880년대 초 톨스토이를 만났다. 그는 톨스토이의 초고를 정리했는데 원고를 정서했을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에게 미완성 원고를 보완하도록 권유한 인물이었다(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범우사, 1987, 309쪽). 톨스토이의 「다시 생각하세요!(Одумайтесь!)」는 1904년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Leo Tolstoi, Bethink Yourselves!, translated by V. Tchertkoff, Boston, Ginn & Company, 1904.

17) 「トルストイ翁の日露戦争論」, 『平民新聞』, 39, 1904.8.7.; 톨스토이, 平民社訳, 『トルストイの日露戦争論』, 文明堂, 1904; 임경화,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인문논총』 72: 2, 2015, 100~101쪽) 런던 타임지의 정식 명칭은 『The Times』였다. 톨스토이의 「다시 생각하세요!」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작가인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1883~1962)와 여성주의 운동가이자 작가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1878~1942)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https://ru.wikipedia.org/wiki/Одумайтесь!>; Александр Иосифович Шифман, Лев Толстой и Восток. Москва, Наука, 1971; Мещеряк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Император Мэйджи и его Япония. Москва: Наталис, 2009; 김 ره호. Лев Толстой и литературы Востока Сб. ст.,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 А.М. Горького, 2000).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는 김옥균에 대한 작품도 집필했다(秋田雨雀, 「金玉均氏の死」, 『人間』 2: 1, 東京: 玄文社, 1920년 1월).

One Thing Needful)」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는데 이 에세이를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 체르뜨코프(Чертков В.Г.)였다.¹⁸⁾

셋째 톨스토이는 1905년 12월 「세기말(Конец века)」이라는 제목으로 러일전쟁에 대한 에세이를 완성했는데 1905년 12월 말 발행인 체르뜨코프(Чертков В.Г.)의 『언론의 자유(Свободное слово)』라는 잡지에 실렸다.¹⁹⁾ 톨스토이는 1906년 「세기말(The end of the age)」이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출판했다.²⁰⁾

필자는 톨스토이가 러일전쟁 전후 신문과 잡지 등에 투고한 반전사상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또한 톨스토이가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면서 그가 언급하는 국가와 연합의 실체, 그리고 톨스토이가 국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농촌공동체'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²¹⁾ 이 논문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인 톨스토이의 에세이를 통해서 러일전쟁이 가져온 20세기 초반의 정신적 변화의 단면을 살펴볼 것이다.

II.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

1. 러일전쟁에 관한 언론의 보도

톨스토이에 따르면 문명은 그 사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었다. 문명은 사회에서 신이 우세한가 아니면 악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었다. 문명은 다수가 소수의 노예와 같은 억압 상태에서는 억압의 잉여 수단일 뿐이었다. 상류계층이 문명이나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대다수를 지배하는 노예제도의 수단과 결과에 불과했다.

톨스토이는 신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신문은 선량한 정서와 지혜로운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은 명칭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다.²²⁾

톨스토이는 러시아 언론의 러일전쟁에 대한 보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대부분 러시아 기자들은 러일전쟁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가장 뻔뻔하고 명백한 거짓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갖가지

18) 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652-654;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66-205. 톨스토이의 에세이는 1905년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Leo Tolstoy. The One Thing Needful, Translated by Vladimir Grigor'evich Chertkov, London, Free Age Press, 1905.

19)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31-277; 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669, 681.

20) Leo Tolstoy, The end of the age. London, William Heinemann, 1906.

21) 필자는 톨스토이가 집필한 1903년 5월 「애국심과 정부(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1900년 8월 「살인하지 말아라(Не убий)」, 1900년 10월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노예제(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1903년 5월 톨스토이는 「정치 활동가에게 고함(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 등을 활용하여 그가 주장한 국가와 연합의 해체를 규명할 것이다.

22)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66.

방법으로 오로지 러시아인만이 정당하고 강인하고 훌륭하다고 보도했고 일본인이 정당하지 못하고 허약하며 모든 면에서 어리석다는 증거를 가져왔다.²³⁾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배를 은폐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러일전쟁을 주동한 러시아 지배층은 애국주의 전쟁의 관점에서 러시아인에게 부끄러운 패배라는 분명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1904년 4월 현재 수천 명의 불행한 러시아 군인이 부상을 입고 죽었지만 영웅적 업적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모든 신문은 학살에 대한 끔찍한 격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파손된 순양함 레트비잔호, 파괴된 수뢰정뿐만 아니라 2천명의 러시아병사는 압록강에서 사망했다. 일본은 러시아인의 피를 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지금은 감상적인 것이 죄악이다. 러시아는 고통스러운 일격을 일본에게 가해야 한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신문기자들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정이 나빠질수록 더 양심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논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문기자들은 정기구독과 판매부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끌어 모았다. 심지어 톨스토이는 돈과 국민이 러일전쟁에 더 많이 투입될수록 관리들이 더 많이 백성을 착취해 간다고 주장했다.²⁴⁾

톨스토이는 전쟁을 선동하는 기자와 지도자의 궤변 논리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기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전쟁을 선동하는데 그들은 전쟁이 대체로 필요하고 유용하며 지금의 전쟁이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러일전쟁 당시 “기자들이 민중의 이익, 국가, 문명화, 백인 등을 언급하며 전쟁을 정당화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조국, 신앙, 맹세, 명예, 문명화, 추상적인 인류 전체의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실행한다”고 주장했다.²⁵⁾ 톨스토이는 지도층이 애국주의 관점에서 전쟁을 포장했고 언론이 러일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비판했다.

2. 러일전쟁의 광기와 원인

톨스토이는 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지배자들만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서로 중요하게 만든 다음, 국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전쟁을 계획했다.”²⁶⁾ 1904년 5월 톨스토이는 「다시 생각하세요!(Одумайтесь!)」에서 러일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글을 시작했다. “다시 전쟁이다. 다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으로도 유발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다시 거짓이 시작되고 다시 사람들 모두가 낮이 나가 짐승이 된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무장이 불가피하게 전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모든 책자들, 팸플릿, 신문기사 등이 헤이그평화회의와 국제재판소를 언급하면서 국제적

23)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05.

24)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40-141.

25)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12-113.

26)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84-185.

인 논쟁의 해결 방안을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쟁이 가장 저급하고 본능적인 욕망을 인간에게서 불러 일으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야수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갑자기 시작 되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잊혀 지는데 전쟁의 잔인함과 불필요함과 광기를 증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다.²⁷⁾

톨스토이는 러시아 지도자와 학자가 러일전쟁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니콜라이 2세는 그동안 소중히 여긴 평화 수호에 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침략했으니 일본인을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공공연히 선포했다. 일본 일왕 역시 러시아인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선포했다. 둘째 법률가 마르텐스(Мартенс Ф.Ф.)²⁸⁾는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것과 타국의 영토 침략 전쟁을 선동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고 열심히 러시아인에게 증명했다. 셋째 역사가를 포함한 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황인종과 백인종의 관계,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기독교인의 황인종 살해를 정당화했다.²⁹⁾

톨스토이는 전쟁 광기의 선동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비판했다. 첫째 러시아 사회의 상류층은 부자 연스럽고 흥분되었다. 그 열광적인 광기의 모든 선동은 자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의식의 징후였다. 둘째 신문에 보도되는 슬라브어 기도문, 온갖 행진, 애국가 제창, 만세의 외침 등은 폭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분별한 언론의 거짓이었다. 셋째 사람들은 희생자를 죽이기 시작한 다음 멈출 수 없는 살인자처럼 행동하며 전쟁을 지속했다. 분별을 잃고 짐승처럼 변한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계속 지속했다.³⁰⁾

톨스토이는 인간이 개인과 국가의 삶을 하나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파멸의 전쟁과 이성의 상실로 향할 것이며 전쟁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첫째 국가는 국가에 맞서는 폭력의 수단을 불가피하게 확대시키면서 군비 확장에 집중할 것이다. 둘째 인간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궤변이 정의로 둔갑하는 사실도 주목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국제법학자 마르텐스는 러일전쟁이 헤이그평화회의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가 세계에서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 생각과 언어는 인간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³¹⁾

톨스토이는 애국주의의 가면을 벗기면서 전쟁의 광기를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첫째 러시아 황실은 애국

27)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01-102. 톨스토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악동의 역할을 수행했다. 러시아는 무기로 자국 국민을 짓밟고, 폴란드의 목을 조르고, 투르케스탄과 중국을 약탈하고, 핀란드의 숲통을 조이는 데 전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각국 정부에 군비 축소를 제안했다. 열강은 겉으로만 국가 간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Толстой Л.Н. 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90.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8. С.434).

28) 마르텐스(Фёдор Фёдорович Мартенс, 1845~1909)는 1863년 뉘른베르크대학 법학부에 입학. 1873년 국제법 분야인 '동방에서 영사와 영사 관할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76년 뉘른베르크대학 법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1905년까지 근무했다. 1881년부터 러시아외무부 고문으로 활동하여 1899년과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905년 포츠머스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 외교고문으로 참여했다(https://ru.wikipedia.org/wiki/Мартенс_Фёдор_Фёдорович).

29)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04-105.

30)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09-110.

31)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16

주의라는 거짓으로 숨기면서 자신의 이익과 야심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을 옹호했다. 니콜라이 2세와 군부 대신 꾸로빠뜨킨은 살아 있는 러시아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일본인이 만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일본인을 내쫓기 위해서 5만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필요했다. 둘째 러시아인은 러시아 황실을 위해서 만주와 한국에서 자행한 기행과 약탈을 옹호하다 죽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는 “한반도의 닛선 삼림에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꾼의 괴이한 사업을 위해서 러시아 민중 전체 노동의 산물인 수백만의 큰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삼림의 사업은 바로 ‘압록강삼림회사’였다. 셋째 톨스토이는 1904년 3월 31일 사망한 태평양함대 사령관 마카로프(Макаров С.О.)의 죽음에 대한 『노보예 브레냐(Новое время)』의 다음과 같은 보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러시아에 마카로프는 1명이 아니다. 마카로프와 같은 모든 해군대장은 마카로프의 자취를 따라갈 것이며, 죽은 마카로프의 계획과 사상을 전장에서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러시아인은 모두가 인정하는 능숙한 살인자인 용감한 마카로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수백만 루블에 달하는 살상 무기인 전함의 침몰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러시아인은 마카로프만큼 능숙한 다른 살인자를 찾는 일에 고심하면서 새롭고 훨씬 효율적인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 톨스토이는 니콜라이 2세부터 신문기자까지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새로운 광기와 잔인함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³²⁾

한편 톨스토이는 일본의 전쟁선동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유럽을 모방하는 일본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훨씬 열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일왕은 열병식을 하고 훈장을 수여했다. 일본 장군들은 살인 방법을 배운 다음 오히려 계몽되었다고 상상하면서 허세를 부렸다. 일본 신문기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정기 구독에 기뻐했다. 살인이 용기로 격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악덕이 번성하는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일본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처가 금한 살인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했는데 그들은 위대한 석가모니의 생각을 왜곡했다.³³⁾ 톨스토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지도자와 언론인 모두가 러일전쟁을 정당화 하면서 전쟁의 광기와 잔인함을 부추겼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3. 러일전쟁 기원의 원인자

1905년 6월 톨스토이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에서 러일전쟁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극동에서는 러일전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했다. 러시아는 예비병사 수만 명을 현역에 복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비병사 모두는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보드카에 의지하여 허세를 부리며 차량에 올라타고 극동으로 거침없이 가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이성적인 이유가 없으며, 또 어떤 해명이 있을 수도 없다.”

32)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36-138.

33)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41-142. 강옥현은 톨스토이가 러일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마음과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찾았다고 주장했다(강옥현, 「러일전쟁 시기의 러일식민인의 반전(反戰)사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6, 81쪽).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의 겉모습을 보면 니콜라이 2세가 전쟁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만약 니콜라이 2세가 만주와 한국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금지시키고, 일본의 러일협상 요구안을 동의했다면 러일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니콜라이 2세가 지금이라도 평화조약을 제안한다면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톨스토이는 니콜라이 2세가 “평범하고 평균적인 수준의 인물이며 미신을 지독히 믿는 교화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의 규모와 결과 면에서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가 러일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이 짜르나 일왕이 아니라 사회 조직의 구조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사회 조직의 구조 때문에 짜르나 일왕이 수백만 명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결국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구조와 기구를 조직한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³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사회 구조와 기구가 인간을 괴롭히고 러시아를 통치하고 판단했다. 톨스토이는 ‘똑똑하지 않은 경기병 장교 출신’의 니콜라이 2세가 황제를 계승하여 수만 명의 생명과 수십억 루블이 필요한 만주와 한국 프로젝트를 정부 각료들과 함께 기획했는데 이들은 향후 새로운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정부관 극소수의 사람이 자기 의지를 대다수의 사람에게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조직이었다. 모든 유럽 국가는 광기에 왕좌에 올랐던 황제가 난폭하면서 자신의 민중을 기만시키고 민중을 음탕하게 만든 역사였다.³⁵⁾ 결국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구조와 기구를 조직한 인간에게 있었는데 러시아로 한정시키면 짜르 체제에 기반한 러시아정부가 러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전쟁의 근본원인을 국가라고 생각했다.

4. 러일전쟁의 결과

1905년 12월 톨스토이는 「세기말(Конец века)」에서 러일전쟁 패배의 결과로 러시아국가 붕괴의 징후로 파악했는데 러시아국가의 붕괴가 모든 사이비 기독교 문명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톨스토이는 “이는 낡은 세기의 끝이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군대와 함대의 패배 원인이 불행한 우연과 러시아 관료의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패배가 러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명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와 함대의 파괴는 단순히 군대와 함대의 파멸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국가의 붕괴 징후였다.

톨스토이는 일본이 러시아를 쉽게 승리한 원인에 대해서 러시아 민중을 사로잡은 1905년 혁명운동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1905년 러시아 혁명운동의 원인은 “명청한 정부와 혁명가의 활동”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러시아의 약화, 국제관계의 재편, 러시아의 지배 방식의 변화를 초래했다.³⁶⁾

34)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66-168.

35)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69-170.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에서 일본군대의 승리 원인을 일본인이 군사 업무에서 효율적이고 월등히 우월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기에 때문에 승리했다. 첫째 일본인은 전투에서 기독교 국민들보다 과학적 기술적 개선을 더 많이 실행했다. 둘째 용감한 일본인은 죽음을 초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일본인은 호전적 애국주의로 정신을 무장하여 신성불가침의 힘을 보여주었다. 넷째 일본인은 신격화된 일왕의 권력에 복종했는데 노예와 같은 전제주의에 복종하여 통합되었다.³⁷⁾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에서 일본 승리의 의미와 결과를 주목했는데 그는 기독교 민족들에 대한 비기독교 국민들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우월성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기독교 민족들은 서로를 말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그런데 비기독교 민족들 가운데 호전적이고 교활하며 모방을 잘하는 민족인 일본인이 나타났다. 일본은 다른 비기독교 민족들과 함께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성을 사전에 파악했다. 일본인은 매우 빠르고 기민하게 서구의 모든 전쟁의 기술과 함께 과학적 지혜를 터득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종교적 애국심에 기초한 전제주의에 기반하여 어느 군사강국보다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 둘째 모든 비기독교 민족은 일본을 마찬가지로 기독교 민족의 전쟁 기술을 터득한 다음 기독교 국가를 없애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셋째 기독교 민족들은 부도덕하고 멍청한 일을 스스로 자행했다.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는 기독교 민족들이 수행한 모든 부도덕한 일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기독교 정부는 민중들의 힘을 헛되이 낭비했으며 비기독교 민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넷째 만일 기독교 민족들이 기독교인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들의 노력을 군사력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시켜야 했다. 그것은 거친 폭력이 아닌 이성적인 화합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독교 세계를 이긴 일본 승리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³⁸⁾

톨스토이에 따르면 일본의 승리는 기독교 민족들의 옳지 않음을 모든 세계에 보여 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관청의 주장인 어떤 인물을 위해서 자국민을 무의미한 러일전쟁에 빠뜨렸다. 러일전쟁은 수만 명의 생명, 수십억의 재화, 민중의 노동 생산물 등이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다. 러일전쟁은 러시아를 자랑스러워하던 러시아인의 명성을 추락시켰다.³⁹⁾ 결국 톨스토이는 비기독교 민족이 기독교 민족들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러일전쟁을 평가했는데 러일전쟁의 패배가 러시아 정부와 국가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러일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대립을 주목했다.

36)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32-233 톨스토이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패배의 원인을 패배자 잘못, 즉 열악한 러시아 군사업무 체제, 관리들의 과오와 실책 등으로 설명하려고 했다(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34).

37)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34-235.

38)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36-237.

39)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38.

Ⅲ. 국가 및 연합의 해체와 농촌공동체의 조직

1. 국가와 권력

톨스토이는 1900년 8월 「살인하지 말아라(Не убий)」에서 사회질서와 권력자를 비판했는데 그는 살인이 정신적 마비 상태를 확대할 뿐이라고 보았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국민의 불행을 가져온 원인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질서였다. 사람들은 사회 질서 하에 단단히 묶여 소수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게 되었다. 사회 구조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었다. 그들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권력에 대한 사랑과 허영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주위의 굴종과 아첨 때문에 악행을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이 인류 번영의 공헌자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⁴⁰⁾

1903년 5월 톨스토이는 「애국심과 정부(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에서 애국심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필요성을 고민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세계적인 군비 확장과 파멸적인 전쟁은 바로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다. 애국심은 감정으로서 해로우며 원리로서 어리석은 것이었다. 스스로를 최상의 국민과 국가로 생각한다면 모두는 해악을 낳는 거대한 망상 속에 살아갈 것이다. 애국심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침략하고 학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이었다.⁴¹⁾ 이웃 민족의 침략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의 존재가 필요하다.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민족들의 분노를 자극한 다음 자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국가가 위협에 빠졌고 기필코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호도했다.⁴²⁾

1900년 10월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노예제(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에서 법률과 정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현재의 노예제는 토지, 세금, 재산에 관한 세 가지 법률에 기인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위의 세 가지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었다.⁴³⁾ 모든 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법을 만든 자는 누군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장 병력을 보내서 폭행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힘은 한 가지 뿐인데 그

40) Толстой Л.Н. Не уб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С.200-205. 이 에세이(Thou Shalt Not Kill)는 1900년 8월 완성되어 1900년 잡지 『Листок Свободного слова(№.17)』에 실렸다(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568).

41) Толстой Л.Н. 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90,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8, СС.427, 429. 이 에세이는 1900년 5월 완성되어 1900년 잡지 『Свободное слово』에 실렸다(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90,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8, С.446).

42) Толстой Л.Н. 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90,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8, СС.434-435. 이문영은 톨스토이가 주장한 국가에 대한 거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와 싸우는 방법, 애국심에 대한 거부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모시는사람들, 2016, 51~81쪽).

43) Толстой Л.Н.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176. 이 에세이(The Slavery of Our Times)는 1900년 10월 완성되어 1900년 잡지 『Свободное слово』과 『Русские ведомости (№.245)』에 실렸다(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565).

것은 폭력이었다. 입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⁴⁴⁾

톨스토이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자금과 병력을 보유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국무를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국의 침략을 막기 보다는 오히려 이웃 국가를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더구나 정부는 종교와 교육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과 승배를 주입했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노예제는 법에서 비롯되고 정부가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정부를 폐지해야만 노예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⁵⁾

1903년 5월 톨스토이는 「정치 활동가에게 고함(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에서 사회체제의 권력을 비판했는데 그는 역사 속에서 사회체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사회적 삶이 완전히 동물적 자유였을 때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집어삼켰다. 둘째 1인의 권력이 사회적 이상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통치자를 신격화하면서 이집트나 로마처럼 열정적으로 통치자에게 복종했다. 셋째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을 이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조직은 인간이 영위하는 조직에 얼마만큼 유익한가에 따라 권력의 지지를 받았다. 넷째 보통 선거권의 유무를 떠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이상이 생겨났다. 다섯째 사회적 삶의 이상은 모든 생산 수단이 사적 재산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재산이 되는 경제 조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체제 모두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권력이란 사람들에게 기존의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이었다. 오늘날도 똑같은 권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혁명과 사회주의자도 비록 기존의 국가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권력을 인정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존의 법률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권리를 사회 질서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했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권한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 19세기 말 국가의 권력은 너무도 막강해져 사람들이 국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⁴⁶⁾ 왕, 황제, 대신, 재판관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는 바람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이 악행을 일삼았는데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권력을 무너뜨린 권력은 권력으로 남아 있었다.

톨스토이는 국가와 권력에 대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인간은 권력이 무용하며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권력을 철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권력에 복종하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인간의 합리적인 각성에 의해서만 철폐될 수 있다.⁴⁷⁾ 결국 톨스토이는 인간이 국가와 권력의 한계를 깨달아서 합리적인 각성을 통해서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4) Толстой Л.Н.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179.

45) Толстой Л.Н.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С.188-189.

46) Толстой Л.Н.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СС.200-201. 이 에세이는 1903년 5월 완성되어 1903년 잡지 『Свободное слово(№.85)』에 실렸다(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С.677).

47) Толстой Л.Н.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СС.206-207.

2. 정부의 유형과 국가와 연합의 해체

플스토이는 정부 권력이 무엇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가를 잘 파악한 인물을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라고 주장했다. 플스토이는 마키아벨리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모든 군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쟁, 군사 기술, 훈련이다. 군사 기술에 군주의 권력이 갖는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군주뿐만 아니라 시민도 최고의 통치에 도달할 수 있다. 군주는 가면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군주는 신의, 자비심, 인간적임, 정직성, 신양심 등의 5가지 자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⁴⁸⁾

플스토이는 악한자의 지배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복종은 폭력을 참아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였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언제나 지배해 왔는데 더 선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지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⁴⁹⁾ 언제나 권력은 악한 자의 손에 놓여있었다. 가장 악한 자만이 권력에 가담하는 데 그들은 필요한 교활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인간 사회에는 권력욕이 강하고 비양심적이고 잔인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폭력, 강도, 살인도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 이용하여 조작한 여론으로 지지를 받고 찬양받으며 미화되기까지 했다.⁵⁰⁾

플스토이는 절대 군주국, 입헌 군주국, 공화국 등의 정부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조세를 명목으로 민중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폭력적으로 빼앗으며 재화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둘째 정부는 민중에게서 뺏은 땅의 소유권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유지했다. 셋째 정부는 군대를 고용과 징집으로 구성했는데 군대는 사람들의 살인과 약탈 행위를 실행하는 전문적인 살인자 집단이었다. 플스토이는 정부의 노예가 가장 잔인한 노예 상태라고 규정했다. 사람들은 정부의 노예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유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입헌국가와 공화국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노예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겼다.⁵¹⁾ 또한 플스토이는 입헌국가와 사회주의 정부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선출된 사람들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라 정당들의 싸움에서 자신의 가치와 권력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을 다스렸다. 첫째 입헌국가의 국민은 언제나 노예였다. 왜냐하면 국민은 정부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국민에게 자행된 모든 폭력의 법칙을 인정하고 권력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이었다. 둘째 사회주의는 이론의 확산을 통해서 국민을 더욱 예속화시켰다.⁵²⁾

그런데 플스토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달성된다면 사람들에게서 자유의 마지막 흔적마저도 빼앗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⁵³⁾ 특히 플스토이는 1904년 10월 23일(양력 11.5)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헤이민신문(平民新

48)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74-177.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로 『군주론(Il Principe)』, 『로마사 논고』 등을 저술했다.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49)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83.

50)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54.

51)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76-181.

52)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45-246.

53)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60.

聞』 편집자인 아베 이소오(安部磯雄)에게 러일전쟁 반대와 사회주의 비판에 대한 편지를 보냈다. 톨스토이는 “기만적이고 어리석은 국민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전쟁범죄에 반대하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일본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그 증거를 보게 되어 몹시 기쁘다”며 아베 이소오(安部磯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는데 “일본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인민 가운데 정신적으로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포기하기 시작한 허약하고 망상적이며 잘못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에서 물질적 복지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제안하는 수단에 의해서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 복지를 포함하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복지가 인류의 참된 복지입니다. 그 최고의 목적은 나라와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완성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⁵⁴⁾ 그 배경에는 톨스토이가 혁명가와 사회주의자의 수단도 모두 비도덕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혁명 기도는 거짓과 기만,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는데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해줄 뿐이며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⁵⁵⁾

톨스토이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혁명주의자의 정부와 조직을 모두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는 한번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정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주의자는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혁명주의자는 과거의 조직을 해체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 조직은 완전한 경제적 평등을 정착시키고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혁명 이후에도 새로운 조직이 동일한 상태로 회귀할 것이므로 형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⁵⁶⁾

톨스토이는 범세계적인 군주국 혹은 유럽연합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국민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⁵⁷⁾ 톨스토이는 국가 동맹과 연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권력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 본성과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된 자유의 법칙을 거스르는데 어리석은 폭력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존재 본연의 자유를 인식하면서 권력욕으로 인한 양심과 법칙을 저버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통일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라는 이상을 위해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톨스토이는 국가의 해체를 통해서 조국과 연합의 미신을 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톨스토이에 따르

54) Толстой Л.Н. 1904.10.23.(11.5) Изв-Абэ.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7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5. СС.176-177. 이 편지는 1905년 3월 잡지 『Свободное слово』에 실렸다(Толстой Л.Н.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7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5. С.178).

55) Толстой Л.Н.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я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СС.209-210.

56)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96-197.

57)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16.

면 사람들의 평화는 국가의 확대와 강화로 달성될 수 없는데 이것은 강압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의 폐지로 달성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와 조국이 신성한 것이라는 미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미신의 본질은 다른 지역과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폭력에 처해 있으므로 자신들이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연합체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다. 폴스또이는 정부에 복종하기를 멈춘다면 국가와 국가라는 인위적인 연합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⁸⁾ 그는 인간이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국가와 연합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3. 자각을 통한 농촌공동체 조직

폴스또이는 국가의 폐지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고 주입받은 군인도, 전쟁 준비를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장관도, 전쟁을 선동하는 기자도 ‘자신이 누구이며 삶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

폴스또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한 인간의 자각에 대한 호소가 불행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을 가장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구제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폴스또이에 따르면 이 자각은 바로 1900년 전 그리스도가 제안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회하고 스스로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가 왜 사는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는 것이었다.⁵⁹⁾

폴스또이는 전쟁과 인간을 다음과 같이 성찰했다. “내 삶의 문제는 뤄순(Порт-Артур) 항에 대한 청국, 일본,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 삶의 문제는 나를 이와 같은 삶으로 보냈던 자의 의지를 실천하는 데 있다. 이 의지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데 있다.” 폴스또이는 “신이 나에게 산림 지대인 용암포 또는 뤄순항에 대한 방어를 수행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폴스또이는 “인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쟁을 지원하거나 원조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폴스또이 자신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길 원하지도 않으며,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스또이는 “인간이 삶과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삶과 죽음도 복종하는 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⁰⁾

폴스또이는 ‘적을 사랑’할 것을 강조했는데 선한 삶인 평등, 청렴, 동정, 사랑을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편전쟁을 일으킨 영국인처럼 청국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둘째 프랑수아, 러시아인, 독일인이 그랬듯이 식민지인의 땅을 뺏기 위해 식민지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셋째 러시아인이 그랬듯이 길을 파손했다는 죄로 만주인을 생매장하지 않고 결박하지 않으며 아무르강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⁶¹⁾

58)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55-257.

59)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19-120.

60)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130-131.

61)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33.

톨스토이는 ‘정신적 투쟁’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 두 인종 사이의 격렬한 싸움, 폭탄과 탄환으로 전개되는 전쟁이 아닌 인류의 교화된 인식인 정신적 투쟁을 강조했다. 정신적 투쟁은 바로 인류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암흑과 고통 사이에서 씬 없이 진행되는 것이었다.⁶²⁾

톨스토이는 16세 프랑스 작가 라 보에티(La Boétie)가 쓴 자유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자유 이것은 위대한 혜택이다. 자유의 상실은 온갖 다른 재앙을 초래한다. 자유가 없다면 남아 있는 혜택마저도 그 맛과 매력을 상실한다.” 라 보에티는 “인간이 정부의 권력을 파괴하려면 그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었다.⁶³⁾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 볼 것을 강조했다. 톨스토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대를 이어서 잔인한 실수라는 혼란스러운 의식만을 가진 채로 살다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⁶⁴⁾

톨스토이는 러일전쟁 전후 대변혁과 혁명기의 시대가 시작 되었다고 판단했다.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복종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자유는 바리케이트, 살인행위, 강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에 대한 복종을 폐지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⁶⁵⁾ 지금 인류에게 다가온 대변혁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복종이라는 기만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어떤 폭력적 권력이라도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도록 민중을 자각시켜야 한다.⁶⁶⁾ 개별 인간의 삶과 인류 전체의 삶도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이 실수를 바로잡는 시기가 바로 혁명기였다. 사람들은 대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조국이 허구이고 삶과 진정한 자유가 실제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인간은 국가라고 불리는 인위적인 연합을 위해서 생명과 자유를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진실한 삶과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소산인 범죄와 같은 인간에 대한 복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⁶⁷⁾

톨스토이는 국가의 대안으로 ‘내부기구(Внутреннее управление)’인 소규모 ‘농촌공동체’를 제안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공동체는 지역의 자치 관리국 외에는 어떤 정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러시아 민중에게 결코 필요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부담일 뿐이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그만두고 농업생활(земледельческая жизнь)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것은 동일한 조건의 농업생활에 놓여 있는 작은 공동체(небольшое общество)였다. ‘농촌공동체’는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으며 종족과 종교의 조건을 통합하는 자유로운 연합체의 모습이었다. 공동체는 폭력에 기반을 둔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62)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47.

63)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74. 에티엔 드 라 보에티(Étienne de La Boétie, 1530~1563)는 판사이자 작가였다. 그는 철학자 몽테뉴의 친구로 『자발적 복종(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반박한 것이다.

64)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94.

65)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40

66)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57, 261.

67)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75, 277.

것이였다.⁶⁸⁾ 결국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국가에 소속할 때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민중이 정부에 복종하기를 그만두면 세금도, 토지수탈도, 권력의 압박도, 군대도, 전쟁도 없을 것이다. 도덕적인 농촌 공동체는 폭력이 아닌 상호 화합에 기반을 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⁶⁹⁾ 톨스토이는 러시아 농촌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의 건설을 통해서 전통적이면서도 다름 없는 자연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IV. 맺음말

20세기 초반의 과거는 톨스토이가 비판했던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런데 21세기 초반의 현재도 핵전쟁의 위협과 소규모의 전쟁과 인종간의 폭력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권력에 대한 사랑과 허영에 빠져있기 때문이었다. 권력이란 사람들에게 기존의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이었다. 톨스토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회체제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톨스토이는 국가를 혐오했지만 외세의 침범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다른 민족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판단했다. 그에겐 세상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악의 존재였다. 톨스토이는 민족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민족 자체는 애국심과 침략성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톨스토이는 소규모의 도덕적인 ‘농촌공동체’를 국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톨스토이의 비판과 대안을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작은 정부,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지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톨스토이는 폭력을 증오했다. 사람들을 사회의 악폐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고통의 원인인 폭력을 가르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폭력의 근절은 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다.⁷⁰⁾ 톨스토이는 인간의 실천 방안으로 폭력에 대한 무저항을 강조했다. “악으로 악을 근절시켜서는 안 되며, 악을 줄 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절제하는 것이다.”⁷¹⁾

톨스토이는 국가의 애국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했는데 그는 국가의 최면술이 사람들의 뉘를 나가게 만들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우리에게 살인을 강요하는 것은 ‘신이 원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점점 더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었다.”⁷²⁾ 톨스토이는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⁷³⁾ “인간은 신과 유사한 정신적 존재이고 인간은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68)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62-263.

69)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С.273-274.

70) Толстой Л.Н.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С.198.

71)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42.

72)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48.

것이다. 인간은 사랑으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다.”⁷⁴⁾

결국 톨스토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⁵⁾ 인간은 삶의 사명과 의미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행동의 ‘내적지침’이 필요했다. 톨스토이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람들을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⁷⁶⁾

73)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23.

74)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03.

75) “도시에서 과감한 약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리의 조명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기아로 죽지 않는다면 운송로 때문일 것이다. 마녀를 화형시키지 않는다면 지식의 발전과 선량한 감정 때문이다.”(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198).

76) Толстой Л.Н.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СС.214-215. “Любовь же проявляется в делании другим того, что хочешь чтобы тебе делали.”(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С.203).

〈참고문헌〉

- 『Новое Время』, 1904.1.25., 1904.2.2., 1904.2.4., 1904.2.18.
- Толстой Л.Н. Одумайтес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 Толстой Л.Н. Единое на потребу.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 Толстой Л.Н. Конец ве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6.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6.
- Толстой Л.Н. Не уб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 Толстой Л.Н.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4.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2.
- Толстой Л.Н. К политическим деятеле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35.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0
- Толстой Л.Н. 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90.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8.
- トルストイ, 平民社訳, 『トルストイの日露戦争論』, 文明堂, 1904.
- 「トルストイ翁の日露戦争論」, 『平民新聞(39)』, 1904.8.7.
-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Под редакцией И.И. Ростунова. 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 Ким Рехо. Лев Толстой и литературы Востока Сб. ст.,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
А.М. Горького, 2000(김려춘(저), 이항재(역), 『톨스토이와 동양』, 인디북, 2004)
- Ломунов К.Н. Лев Толсто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Москва: Современник, 1975; Зорин А.Л. Жизнь
Льва Толстого: Опыт прочтения.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20.
- Мещеряков А.Н. Император Мэйдзи и его Япония. Москва. Наталис, 2009.
- Шифман А.И. Лев Толстой и Восток. Москва. Наука, 1971.
- 강옥현, 「러일전쟁 시기 러일지식인의 반전(反戰)사상: 톨스토이(L.N. Tolstoy)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6.
- 고토쿠 슈스이(저), 임경화(역), 『나는 사회주의자다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기원』, 교양인, 2011.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국가는 폭력이다』, 달팽이, 2008.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톨스토이 비폭력 평화 편지』, 열린시선, 2022.
- 레프 톨스토이(저), 최재목(역), 『톨스토이가 번역한 노자 도덕경』, 21세기문화원, 2021.
- 로맹 롤랑(저), 이정림(역), 『톨스토이의 생애』, 범우사, 2008.
- 문석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수용과 그 한국적 변용」, 『世界文學比較研究』, 1996.
- 박노자, 「너희가 톨스토이를 아느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사, 2010.
- 박양신, 「메이지 사회주의자의 반전론」, 『아시아문화연구』 12, 2007.

- 슈테판 츠바이크, 『톨스토이를 쓰다』, 세창미디어, 2013.
- 矢ヶ崎秀則, 「러일전쟁을 전후한 일본의 반전사상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99.
- 심성보, 「레프 톨스토이의 민화에 나타난 노자의 무위사상」,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7, 2004.
- 심성보, 「레프 톨스토이와 아나키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2008.
- 이문영, 『톨스토이와 평화』, 모시는사람들, 2016.
- 이향재, 「노자의 무위와 그리스도의 사랑」,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8, 2015.
- 임경화,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인문논총』, 72: 2, 2015(임경화, 「러일전쟁 전후 일본 혁명가들의 톨스토이 수용 양상」, 『1905년 러시아 혁명과 동아시아 3국의 반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조혜경, 「노장과 톨스토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8, 2017.
- 최대희, 「톨스토이와 사회민주주의적 인텔리겐치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4, 2003.
- 톨스토이, 『비폭력에 대하여』, 바다출판사, 2021.
- 톨스토이, 『사랑의 법칙과 폭력의 법칙』, 아웃사이드, 2004(Leo Tolstoy, The law of love and the law of violence, 1908).
- 톨스토이·아인슈타인·프로이트(저),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 해례원, 2013.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23년 6월 16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7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olstoy's Anti-war Ideology and Community Plan before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Kim Youngsoo*

The past of the early 20th century was marked by war and violence, which Leo Tolstoy criticized. But even now,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threat of nuclear war, small-scale wars and racial violence still rage. This was because human beings fell into love of power and vanity rather than rational thinking. Power was the coercive force that compelled people to obey existing laws. Tolstoy criticized that all social systems in human history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power.

Tolstoy hated the state but acknowledged its role in foreign aggression. He judged that the state had to fend off attacks from other peoples, and that wa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To him, the state was a necessary evil because the world was a reality in which he had to endure suffering. Tolstoy did not criticize the nation, because the nation itself did not impose patriotism and aggression. Tolstoy, h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state, a small, moral 'agricultural community'. If Tolstoy's criticism and alternatives are connected to today's reality, it means the orientation of small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After all, Tolstoy thought critically about national patriotism, arguing that the only way man could be free was to combine his will with the will of God. Humans are spiritual beings similar to gods, and humans carry out God's will, but humans are beings who can achieve blessings through love. Tolstoy argued that human beings should pursue the life of a rational being. Humans needed some realization about the mission and meaning of life or an 'internal guideline' for action. Tolstoy presented the following 'internal guideline' that can be practiced in life, and he said that you should treat others as you would like to be treated.

[Keywords] Leo Tolstoy, Russo-Japanese War, internal guideline, agricultural community, patriotism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hairman of Compilation of Liberal Arts Series